

“교류 차원 넘어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지향을”

아시아문화학회 '문화도시' 학술대회

광주·日요코하마·中 취안저우시
내년부터 문화도시 행사 공동개최

광주를 비롯한 일본 요코하마(横浜), 중국 취안저우시(泉州市) 등 '동아시아문화도시'들이 내년부터 공동 개최하는 문화도시 행사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의 문화도시'의 아시아판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그 행사가 문화 교류 차원을 넘어 문화공동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문화학회(회장 류재환)는 27일 '문화교류와 문화공동체의 아시아 문화공동체,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주제로 2013추계학술대회를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에서 개최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정체성과 미래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학술대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행사에서 기조발제자인 류재환 아시아문화학회장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프로젝트가 문화지정학적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지리적 갈등과 차이점을 극복하고 문화도시의 문화공동체와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럽의 문화도시 행사가 문화예술로 도시를 재생하는 문화예술지형형인 점에 착안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프로젝트도 도시재생의 노

하우를 공유하고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행사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국내에 덜 알려진 중국의 취안저우시(泉州市)의 경우 역사가 깊고 문화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의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하림 조선대 교수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취안저우의 사례분석' 주제발표에서 "취안저우시는 8세기부터 해상 실크로드의 기점으로 이름이 알려진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도시, 세계 다문화전시중심으로 지정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취안저우시는 이슬람, 불교, 도교, 마니교, 라마교 등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역사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역사문화도시로 지정돼 있어 역사·문화자원 면에서 많은 강점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동아시아문화도시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화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리우 링(전남대학교 국문과 박사과정)씨는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추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해당 도시에서도 각 도시의 특성과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동아시아문화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유럽연합이 1985년부터 '유럽 문화수도'를 선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본뜬 한·중·일 문화협력 체계로, 한·중·일 문화장관의 합의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한·중·일 3국은 2014년에 한국, 중국, 일본이 각 1개 도시, 2015년에 중국 1개 도시, 2016년에 한국 1개 도시, 2017년에 일본 1개 도시

를 선정,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광주시는 2014년 한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됐고, 일본에서는 요코하마(横浜), 중국은 취안저우시(泉州市)가 지정됐다. 시는 이를 위해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사무국을 설치했다. 추진위와 광주시는 내년 3월 동아시아문화도시 오픈행사를 시작으로, 3~9월까지 동아시아 유니버시아드 캠프 등 15개 행사를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학회는 27일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에서 '문화교류와 문화공동체의 아시아문화공동체,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성구 아시아문화학회 이사는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광주시의 중장기 문화정책과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채소도’에 그려진 배추…김장철이 왔나보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54) 김장

“...늦가을 배추 포기 묶어주며 보니/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찻다/...배추벌레에게 반 넣어 먹히고도/속은 점점 순결한 것으로 차오르는/배추의 마음은 뭐가 다를까...<나희덕 작 '배추의 마음' 중에서>

올해 배추농사도 풍년이라는 소식을 엿그제 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김장철이다. 추워진다는 기상 예보에 지난 주말 김장준비를 한 가정이 많았는지 새언니, 곡성 친구, 앞집에서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를 보내왔다. 생각해 보면, 김장은 예나 지금이나 겨우살이를 준비하는 왁자지껄한 축제이자 이웃 간 나눔의 정신이 스며있는 소중한 문화다. 우리의 '김장 문화'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가 곧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자부심이 느껴진다.

우리가 김치를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고려 때 문헌인 '향약구급방'에 처음 배추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만 당시에는 무를 주로 먹었으며 배추를 먹기 시작한 역사



‘채소도’

기록이다.

조선시대 민화인 '채소도'는 그림 속에서 드물게 배추를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배추는 사대부들의 문인화에서는 결코 등장할 수 없는 소재로 서민들의 진솔한 감성과 자유로운 미의식을 표현한 '민화(民畵)'이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흔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예술”이라 정의되는 민화는 일본의 민예운동가 야나기 무네요시(1889~1961)가 우리 민화의 가치를 재조명해 이룩지어진 것이기도 하다. 민화는 단순성과 장식성을 오가는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최근 들어 현대미술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사진 제공=폴무영 김치박물관>

여야 ‘強대強’ 대치 속 안철수 신당이 뜬다

오늘 창당 공식화... 이계안 민주 탈당 안신당 합류할 듯

독자세력화를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다.

안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세력화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치상황에 대한 진단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 향후 세력화 계획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준비하기 위한 '창당준비기구' 출범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의 창당준비기구는 법적 구속

력을 가진 '창당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창당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는 실무기구다.

안 의원 측은 여의도에 창당준비기구 사무실을 마련한 뒤 창당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다만, 창당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이나 집의응답 과정에서 창당의 시점은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창당의 시점을 언급할 경우 창당의 내용보다는 일정보에 쫓기게 될 것이

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창당의 시점만 밝히지 않을 뿐 사실상 창당을 공식화함으로써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 내부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 측 내부적으로는 창당 시점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초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창당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제시됐으나, 최근에는 원내 세력화를 최종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방선거 후 창당 시나리오도 부상했다.

한편 이계안 전 의원은 지난 26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안 의원 측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지역구의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구로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이 전 의원은 야권에서 '친 안철수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정치원로들의 모임인 '국민동행'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안 의원 측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3선 의원 출신인 김효석 전 의원도 민주당을 탈당, 안 의원측에 합류할 가능성이 나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안 의원 측 전남지사 후보로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왔다.

안 의원의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인사들의 탈당 러시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희망의 물길 따라 행복한 나눔으로 이어갑니다.



K-water는 댐 주변지역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봉사

호남농센터 운영,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서비스,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장학사업

정학금·급식비 지급, 원어인 영어 교육, 청소년 여름 과학교실

소득창출

공동 영농시설 운영, 농업 기자재 구입,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역발전

도로 확포장 사업, 마을정보화 사업, 빙방울 CCTV설치



빛日만평

- 김중두



뭇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